미중 무역전쟁 격화…美 "2천억 달러 관세"

24일부터 中제품 10% 부과
中상무부 "부득이하게 반격"
600억 달러 보복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약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 정부가 보복을 경고하면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관세부과 대상을 중국 수입품 전체로 확대하는 3단계 추가관세 부과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의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이 이렇게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마윈 중국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겸 회장은 18일 투자자 연례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20일이나 20개월이 아니라 향후 20년간 지속할 것이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일로로 치달으면서 우리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국의 3차 대중(對中) 관세로 인한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일부 가전제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데다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중간재가 상당수 영향권에 들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업계는 20일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갖고 생산지 전환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대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10%, 내년 1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수개월 간 불공정한 (무역)행태를 바꾸고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대하도록 촉구해왔지만, 중국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109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 규모 5055억 달러의 절반 정도인 2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면 "우리는 즉각 약 2670억 달러의 추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 '3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류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을 다음 주 워싱턴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강행 결정에 따라 협상단 파견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스스로의 정당한 권익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부득이하게 반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선언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날 담화에서 향후 미국과 무역협상을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또 앞서 예고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부과 계획도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 무렵까지 내놓지 않았다.

중국의 대미 수입은 1539억 달러(중국 통계국 기준·미 상무부 기준은 1299억 달러)로 중국의 맞불 관세 카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중간재·부품 수출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검열 강화 등의 보복 수단이 동원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무역전쟁 특수 기대…동남아시아 쾌재

중국내 미국기업 33% 생산기지 이전 검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자 동남아시아가 쾌재를 부르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동남아 정부, 업계가 전반적으로 특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동남아는 일단 중국을 대체할 생산지로 주목을 받는다.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설문을 보면 추세가 확인된다.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 430여 곳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무역전쟁에 따른 긴장 때문에 생산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목적지로는 동남아가 첫손에 꼽혔다.

미국의 대중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동남아 제조업체들은 벌써 매출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월마트에 납품하는 베트남의 가구 생산업체 푸타이는 올해와 내년 수출량이 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푸타이는 생산라인을 재단장하고 새 공장을 짓는 데 1000만 달러를 들일 계획이다. 응우엔시호에 푸타이 부사장은 "미중 무역전쟁 악화를 고려하면 미국 수입업자들이 우리에게 눈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생산비가 낮고 사업장도 잘 정비돼 있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높게 유지돼 원래 기업들에 매력적인 지역이었다.

태국은 중국이 수입하는 과일의 21%를 공급하고 있는데 8%를 차지하는 미국 과일이 관세 때문에 밀려나는 자리를 노리고 있기도 하다. /연합뉴스

오늘 日 자민당 총재 선거…아베 3연임 확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오는 20일 오후 실시된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19일 현재 판도는 총재 3연임에 도전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막판 추격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도 취임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농림수산물 수출 및 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실적을 내세우며 최종 굳히기에 나섰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현 정권에서 불거진 모리토모, 가케 학원 스캔들을 겨냥해 "정권 운영 자세가 문제"라며 반아베 성향의 당원표 확보에 주력했다.

선거 결과 국회의원표(405표)와 당원표(405표)를 합산해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차기 총재가 된다.

당원표는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19일에 마감된다.

당원표는 20일 낮까지 집계돼 당 본부에 보고되며, 같은 날 오후 실시되는 의원들의 투표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의원표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당원표에서도 50% 이상을 얻어 무난하게 3선 총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승리가 확정되면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원칙적으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소명으로 내세웠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군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5일 일본 사가(佐賀)시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 거리 연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오른쪽)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군, 종족 궤멸 의도 로힝야족 최소 1만명 학살"

유엔 진상조사단 발표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조사한 유엔 진상조사단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단장은 18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미얀마군 장성들이 계획한 작전의 잔혹함과 민간인 생명 경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개탄했다.

그렇다면 유엔 조사단은 미얀마군에 의해 얼마나 많은 로힝야족이 학살됐다고 추정하는 걸까.

조사단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미얀마군의 탄압으로 1만 명 가량의 로힝야족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단은 이 수치가 보수적인 추정치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미얀마군은 지난해 8월 경찰초소를 습격한 로힝야족 반군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역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학살됐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 규모는 종잡을 수 없었다.

다만,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난민들을 인터뷰해 사태 발생 초기 한 달간 6천700여 명이 학살됐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

학살된 로힝야족을 최소 1만 명으로 추산한 조사단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궤멸시킬 의도를 지니고 학살과 성폭행 등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제법정에서 기소할 수 있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범죄 의도가 명백하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이번엔 전면폭로?

트럼프와 성관계 적나라하게 묘사한 신간 파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현직 고위관리의 뉴욕타임스 익명 기고와 밥 우드워드의 신간 발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책 내용의 일부가 공개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 상대 여성인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쓴 책 '전면 폭로'(Full Disclosure)의 사본을 입수했다며 관련 기사를 다뤘다.

대니얼스는 다음달 출간되는 이 책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주장했던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 당시 상황을 자세하고도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영화계 유명인사였던 대니얼스는 당시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에서 열린 유명인사 골프 대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NBC방송 유명 리얼리티쇼인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첫 만남에 대해 대니얼스는 "트럼프의 심벌인 빨간 캡 모자를 쓰고 있었다" 회고했다.

대니얼스는 이후 트럼프의 보디가드로부터 트럼프의 펜트하우스로 저녁 초대를 받았고, 이곳에서 트럼프와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망쿳' 휩쓴 필리핀 올해 태풍 5개 더 온다

지난 15일 슈퍼태풍 '망쿳'이 휩쓸어 큰 피해를 본 필리핀에 올해 말까지 5개에 달하는 태풍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필리핀 기상청(PAGASA)은 내다봤다.

PAGASA는 이같이 전망하면서 앞으로 남은 태풍이 대부분 4분기에 필리핀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다고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이 19일 전했다.

필리핀은 매년 20개에 달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데 망쿳은 올해 들어 필리핀에 상륙한 15번째 태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4분기에 필리핀에 오는 태풍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다.

2013년 무려 7350명의 사망 또는 실종자를 낸 태풍 '하이옌'은 11월에 필리핀을 강타했고, 2011년 14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온 태풍 '와시'는 12월에 왔다. 지난해 12월에도 태풍 '카이탁'으로 8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데 이어 태풍 '덴빈'으로 200명 이상 사망하고 150명 가량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수 시	정 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추후 공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